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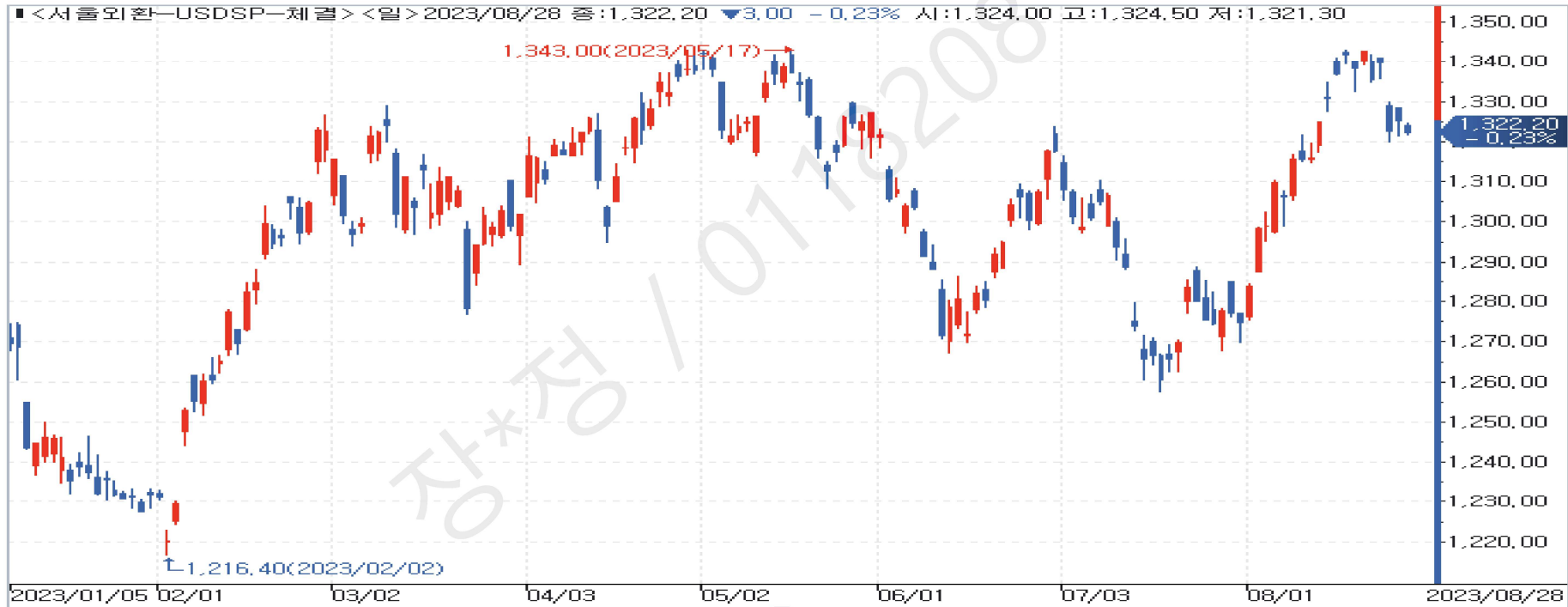
자금시장영업부

2023. 8. 28

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 주간 달러/원 동향(8/21~8/25)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따른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인하로 가중된 위안화 약세에 연동되며 1340원대로 상승 출발. 이어 중국 경기 우려 속 안전자산 수요에 따른 달러 강세 흐름 다소 제한된 가운데 역외 매도세 유입 등에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잭슨홀 미팅 앞둔 경계감 나타난 상황에서 수급 공방 속 결제수요 우위 영향 등으로 상승 전환
- 후반, 미국 8월 S&P 구매관리자지수 부진으로 달러 약세 전환되고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에 위험선호 심리 회복된 측면 반영하며 1320원대로 하락. 이어 주 후반,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대기하는 가운데 추가 긴축 경계감에 따른 달러 강세 흐름에도 방향성 제한되며 소폭 상승 후 마감

## 달러/원 전망

- 잭슨홀 미팅에서 데이터 결과에 의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측면이 달러화 강세를 지지할 요인으로 예상. 여기에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세가 점진적이지만 상방을 향하고 있는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판단. 다만, 잭슨홀 발언의 수위가 시장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과 미팅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등은 다소 그 영향을 제한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최근 중국 정부의 중시 활성화 대책 등에 의한 위안화 약세 흐름 제한 영향과 미 기술주 실적 강세 모멘텀 등에 따른 위험선호 요인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속에 환율은 1,320원대의 평균 가격을 중심으로 등락 양상 시현할 것으로 전망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40.0	1,342.8	1,319.6	1,325.2	-14.8

## 예상거래범위

1,315원 ~ 1,330원



# 엔·유로화 동향 (8/21~8/25)



## 유로화 동향

- 주초, 독일 7월 PPI 상승률 전년 대비 6.0% 하락하는 등 유로존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될 것이란 기대감에 유로 강세 출발. 이어, 유로존 6월 경상수지 흑자에도 연준의 고금리 지속 우려에 달러 대비 약세 전환
- 중반, 유로존 8월 PMI 부진에도 미 제조업 경기 위축 국면 확인되며 경기 둔화 조짐 부각되자 상대적인 유로 강세 시현
- 후반 들어, 잭슨홀에서의 연준 의장 연설에 대한 경계감 강화되며 달러 강세 흐름 이어지면서 유로 약세 전환. 이어 주 후반,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에 대한 경계감과 고금리 유지 필요성 등을 시사했음에도,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 후 달러 강세 나타난 영향으로 유로 약세 흐름 이어지며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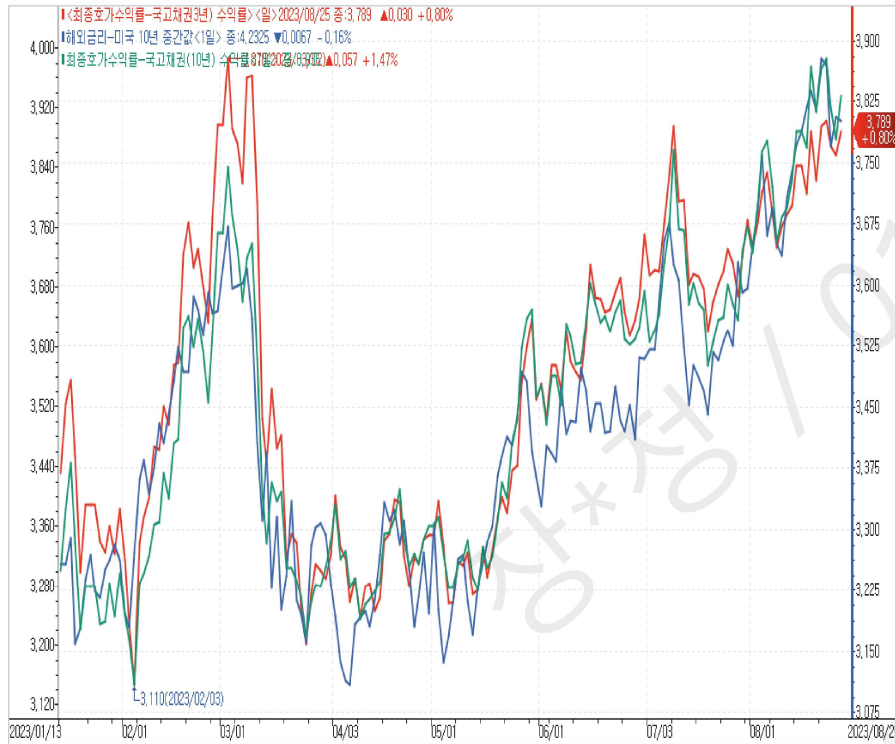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0874	1.0930	1.0766	1.0795	-0.0079

## 엔화 동향

- 주초, 미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장기간 유지될 것이란 전망 강화됨에 따라 미국채 수익률 상승세 이어지자 엔화는 달러당 146엔대 진입하며 약세 출발. 이어, 일본 당국 회동 소식에 따른 기대감으로 엔화 약세 흐름 다소 제한된 모습
- 중반 들어, 미 8월 PMI 부진과 경기 둔화 우려 등에 미국채 수익률 상승세 완화되면서 엔화 강세 전환 후 달러당 144엔대로 하락
- 후반 들어, 잭슨홀 회의에서 BOJ와 미 연준 간 통화정책 차이 부각될 가능성과 미국채 수익률 상승 등에 약세로 재차 전환. 이어 주 후반, BOJ 총재가 잭슨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 달성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엔화 약세 심화되며 146엔대에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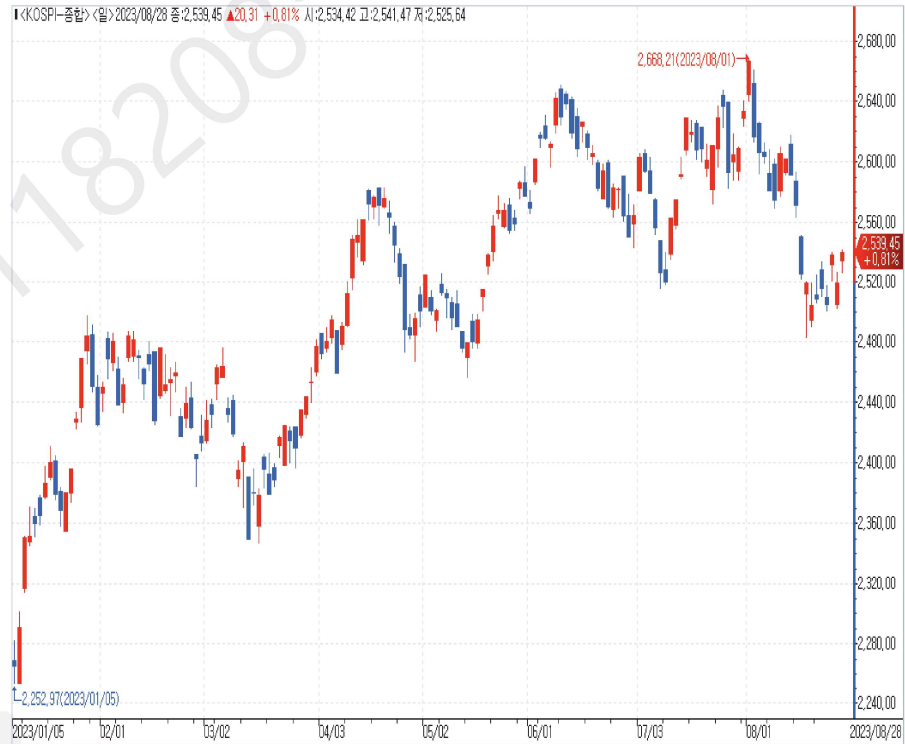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5.4	146.6	144.5	146.5	+1.1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8/21~8/25)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중국 부동산상 업체 형태의 파산보호 신청 등 위험회피 요인 부각 등에도 아시아장에서의 미 국채금리 상승과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등으로 상승 출발 이어, 한은 총재의 국내 물가의 긍정적 성과 언급 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미 국채금리 상승 추세에 연동하는 흐름 속에 상승 추세 지속된 양상
- 중반 들어, 미 국채금리가 하락 전환하면서 이에 연동하여 국고채금리도 하락 추세 전환 후, 후반 들어, 미 국채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큰 폭 하락한 가운데 한은 금통위의 5연속 금리 동결 영향 등으로 하락세 이어진 양상. 이어 주 후반,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이 변동성을 확대하는 가운데 수급상 30년물 입찰 예정도 국고채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승 마감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중국 대출우대금리 인하에 따른 경기 회복 모멘텀 강화 기대에도 예상에 미치지 못한 인하폭과 국내 수출 지표 부진 등이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기관의 매수 강화 등으로 소폭 상승 출발. 이어 미 기술주 중심 상승 영향에도 장중 중국 증시 하락 반전 속 경기 불안감 증폭 등으로 강보합 흐름 시현
- 중반 들어, 미 국채 금리 상승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 확대 등으로 소폭 하락
- 후반 들어, 한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반면, 미국 엔비디아 실적 호조 등에 따른 반도체주 강세 등으로 상승전환 후, 주 후반, 잭슨홀 미팅 결과에 대한 경계감 확대 등으로 소폭 하락 흐름 전환하며 마감